박원자의 母情佛心 ⑨ 중흥사 주지 예진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세탁소를 운영하며 자식 넷을 키운 중흥사 주지 예진 스님의 어머니는 "출가하겠다"는 딸의 선언에 적극 지지하며 출가를 도왔다. 출가 후에도 딸 스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했고, 막내아들이 출가하도록 발원해 사문의 길로 가게 했다.

"스님, 다른 생각말고 절에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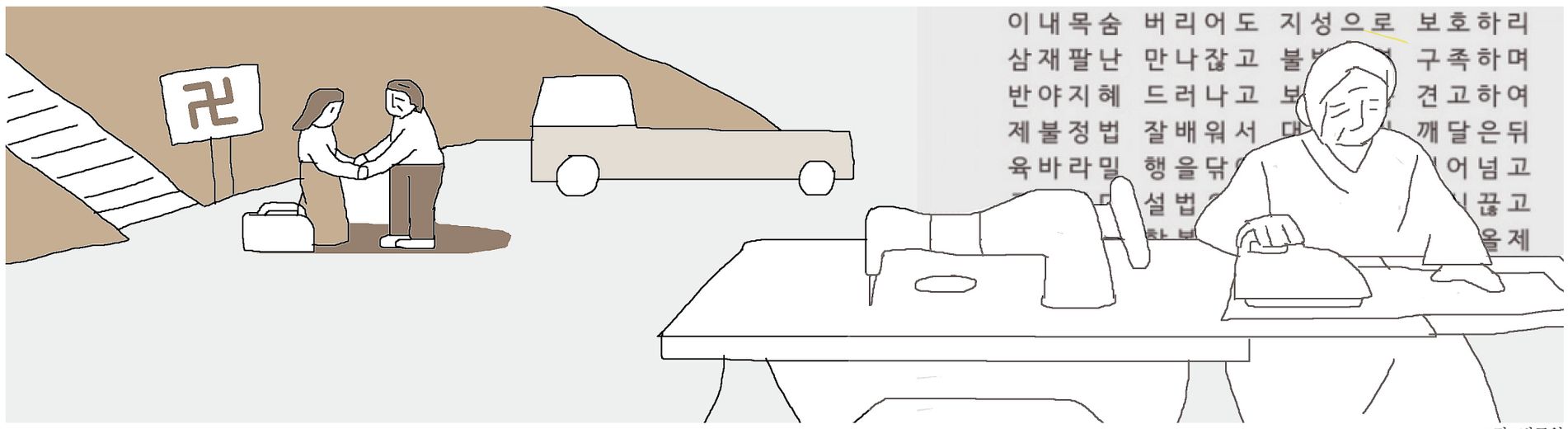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요즘 배우 윤여정 씨 이야기로 세간이 뜨겁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은 생계형 배우라며, 이혼한 후 어린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삶을 있는 그대로 밝혀온 멋진 어머니다. "배우는 돈이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연기가 나온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 이번 수상소감에서도 자신을 일하러 나가게 만든 아들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여정 씨의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나는 반세기에 걸쳐 연기생활을 해온 75세의 노배우만큼이나 아름다운 83세의 어머니 한 분을 떠올렸다. 50년 동안 시골의 자그마한 세탁소를 경영하며 자식 둘을 출가시킨 예진 스님의 어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멀리 경주에서 중생교화의 나날로 바쁜 예진 스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 어머니요? 저를 끝까지 출가의 길을 걷게 한 신장님이자 관세음보살이시죠."

스님을 볼 때마다 '이 분은 화라는 걸 내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다. 물 흐르듯 지금 여기를 전부로 사는 분이다. 출가의 뜻을 조금이라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바로 출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출가수행자의 길을 행복하게 걷고 있는 스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심 스님을 '행복공작소 소장' 으로 부른다.

예진 스님은 28살에 출가를 결심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더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꿈이 곧 사라지고 말아버릴 세속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허망한 욕망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행복을 찾아 출가를 선택했다. 출가를 결심하고 자신이 소유했다고 여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일만 남은 어느 날, 점심 밥상 앞에서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저, 절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에 들왔다. 예진 스님이 태어나 처음 기억하는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고 옷을 수선해 다리미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세탁기도 없던 시절, 수만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남의 빨래를 빨아 헹구고 손질하던 어머니였다.

완고한 시어른과 가부장적인 남편을 모시고 사는 것이 버거울 때면 동네 절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온 어머니였다.

이윽고 비장한 얼굴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잘 생각했다. 내 사는 걸 봐라."

어머니의 녹록치 않았던 세속에서의 삶이 그대로 녹아든 고백이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자가 시집가면 눈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인데, 내 듣기로는 부처님 문중에 가면 눈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각 30년이라던데 할 수 있겠나?"

목숨을 내놓고 해보리라 선택한 길이었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의 담판은 싱겁게 끝났다. 한나절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이렇게 내가 부처님께 자식을 공양하게 될 줄 몰랐구나. 자식 넷을 키워봤지만 너는 유난히 세상의 때가 전혀 안 묻던 순진한 자식이었다. 세상에 살려면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순진해서 세상에 살겠느냐? 너는 그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구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부모님 탓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하던 날,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부모님이 함께 타셨다. 청도 운문사 일주문 앞에서 어머니와 이별했다. 어서 들어가라며 손짓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종무소로 향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는 딸이 사라지자 일주문 밖에서 통곡했다고 한다.

철 들고 처음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많이 배운 분이었으나 가부장적이고 다감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였다. 그래서 가슴에 앙금도 많았다.

"'잘 견뎌라' 하시면서 손을 놓는 아버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간 쌓였던 감정이 겨우내 얼어있던 호수물이 봄볕에 쩍하고 갈라지듯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아버지와의 사이에 흘렀던 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단번에 녹아지는 느낌이었죠."

출가하면 어머니가 많이 생각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힘들던 행자시절을 보낼 때 떠오른 건 그날 아버지와 손잡았던 따뜻한 감촉, 그리고 잘 견디라던 그 한마디였다. 간혹 사람들이 호기심을 담아 묻는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첫사랑에 실패해서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가 아버지인데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엉망진창이어서 출가했어요. 그런데 출가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죠."

세탁소 하며 자식을 키운 모친
"출가하겠다"는 딸 선언 지지해
단단한 스님 되도록 항상 응원
막내아들 출가토록 발원하기도

많은 스님들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한다. 출가란 일단 세속과의 단절이자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예진 스님의 출가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조로웠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다. 크고 작은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던가. '출가의 목적인 성불은 나중의 일이고 승가대학 졸업만 하면 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문사의 규율은 엄격했고 일도 많고 고되었다.

부모님은 방학을 하고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는 딸 스님을 차로 절 앞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이 말을 안 해도 다 안다. 운문사 지붕이 멀리 보이면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에 불안감을 보이던 딸 스님의 손을 꼭 잡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님, 잘하려고도 못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가랑비에 옷 젖듯 부처님 법에 젖는 날이 올 테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절에 계세요."

나중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보니 어머니가 한 당부는 조사 스님들이 한 말씀과 다르지 않았다.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다.

"두 분은 저를 단단하고 반듯한 스님으로 키워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30대에 갈등의 시기가 있었어요. 스님들로 이뤄진 공동체가 아닌 넓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결제를 해봤으면 하는 시기가 있었죠. 나를 세상 한가운데의 실험 무대에 올려보고 싶었죠."

어머니에게 그 뜻을 전했더니 이러시더란다. "스님! 나를 차라리 죽이고 나오세요."

아직 단단히 여물지 않은 어린 수행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출가의 길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음을 안 것이다.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바로 뜻을 접었다는 스님께 물었다.

"스님도 개성이 강한 분인데 어머니 말씀을 금방 수용하셨네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가 항상 옳았으니까요. 어머니는 항상 출가한 저에게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하는데 저는 부모님의 강력한 응원에 의해서 출가한 사람이잖아요. 두 분이 저를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공력을 들이신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집중은 분별과 집착을 떠난 순수한 사랑이다. 그래서 금세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더 치열하게 살게 한다. 예진 스님이 어느 날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경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막내아들이 출가하기를 발원하는 백일기도였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들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출가했다. 어려서부터 명석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다. 먼저 출가한 누나 스님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출가하겠다는 동생에게 '잘 생각했다' 며 환영했다.

아버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출가하자 수행자처럼 살았다. 자식이 그 추운 겨울 새벽에 일어나 도량석을 도는데 어찌 발을 뻗고 잘 수 있느냐며, 그 시간 자신도 염주를 들고 꼬박 두 시간 마을의 뒷산을 돌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지금도 딸 스님이 있는 절에 오면 청소만 한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풀을 뽑는다. '좀 쉬시라' 는 스님의 말에 '내 업장을 청소 해야죠' 라고 대답할 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 스님의 사제나 딸 스님 상좌들의 가사 장삼을 거둬가 세탁해놓는다. 동네에 버려진 책이며 폐지 등을 모아놓았다가 폐지를 줍는 사람에게 전해준다. 남을 돕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한 인사를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진 스님은 꼭 닮아있다.

어머니는 지금도 늘 관음기도를 하며 재봉틀 앞에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을 붙여놓고, 다음 생에는 아이로서 출가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딸 스님이 많은 사람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재벌, 어느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딸 스님을 바라보는 눈길에 존경심이 가득하다.

"어머니께선 두 자식을 출가시키려고 세상이 오신 분 같아요."

"그러잖아도 한 스님께서 예진 스님 모친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자식 둘을 스님으로 배출해 세상을 제도하게 하려고 태어난 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일심으로 기도한다. 출가한 자식들이 스님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어느 자식과도 비교하지 않고 스님의 길을 가는 내 자식이 최고라며 응원하고 존경하는 예진스님의 어머니가 진정한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다.

"비우고 비워서 허공이 되고 낮추고 낮추어서 바다가 되어야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참아야 돼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기도 하고요."

스님은 인생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 말에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냥 한 100일만 참아보세요. 안 되면 1년, 3년, 그래도 안 되면 30년 참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진 스님이 스승과도 같았던 어머니 고영자(대명화) 보살의 삶을 보면서 깨우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가〉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 : 비교시 100% 장난감 수준!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